

환경부 보도 설명자료	제공일	2019년 9월 26일
	소관부서	환경보건정책관 생활환경과
	담당자	성수호 과장/박은혜 사무관 (044-201-6790/6798)

**제목 : 환경부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로부터 국민
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**

[JTBC 2019.09.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- 환경부는 페놀폼 단열재로부터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가 실내 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- 2019.09.25일 JTBC <‘실내 공기질에 영향’...정부, 위험성 알고도 ‘뒷집’>, <인기 단열재서 발암물질 기준치 10배...정부는 ‘뒷집’>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 내용

- 환경부는 단열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가 실내공기 오염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관리 대상 건축자재에 단열재를 포함하지 않음
- 건축물 관리는 국토부가, 실내공기질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어 건축 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다각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

- 환경부는 실내 공간에 직접 노출되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자재* 대상 실내 오염물질**에 대한 방출기준 설정·관리 중

* 페인트, 벽지, 바닥재, 퍼티, 실란트, 접착제 등

** 폼알데하이드, 톨루엔,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

- 단열재의 경우 건축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재(석고보드, 벽지 등)가 시공*되므로, 실내 공간에 직접 노출되는 여타 건축자재와 동일한 방식의 방출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

* (내벽시공단계 예시) 콘크리트 벽면→접착물탈→단열재→석고보드→벽지

※ 단열재의 경우 국내 및 국제표준화기구(ISO)에서 정립한 시험방법이 없음
(보도에 언급된 국립환경과학원 실험에서는 국내 ‘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’ 중 고상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방법을 준용)

-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폐놀폼 단열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가 실제 시공 환경에서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며, 향후 적정 관리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음